



사업 결과

몽골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 및 현장 기록 공동 작업은 몽골과 한국의 무형유산 영상 기록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. 공동 기록팀은 세계화와 급속한 경제 발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몽골 무형유산들의 연행 방식과 관습, 특성 등이 쉽게 잊혀지고 사라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들을 기록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의 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점에도 모두 동의하였다. 공동 기록팀은 향후 몽골의 무형유산 중 특정 종목을 선정하여 기록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교육, 인식제고,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동의하였다.

몽골국영방송(MN2)은 이번 영상 기록 워크숍 및 현장 기록 공동 작업 내용을 “인류무형유산-몽골 나담”이라는 제목의 20분 분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몽골 전역에서 두 차례 방영하였다. 이는 몽골 나담 축제의 가치를 몽골과 한국의 공동 기록팀이 함께 인정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.